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

헨드릭 테르 브루겐(Hendrick ter Brugghen, 1588-1629)
1625, 캔버스에 유채, 207.5x167.7cm
센트랄 뮤지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입당송 |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 아모 6,1ㄱㄴ.4-7

화답송 |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1티모 6,11ㄱㄴ-16

복음환호송 | 2코린 8,9 참조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습니다. ◎

복음 | 루카 16,19-31

영성체송 |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권혁준 바오로 신부 | 하계동성당 주임

세상은 발전하고 삶의 자리도 윤택해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 또한 성장해 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복음에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지내는 ‘어떤 부자’와 집 대문 앞에서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는 ‘라자로’가 등장합니다. (루카 16, 19-20 참조) 부자는 자신의 삶을 즐기고, 라자로는 배고파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보물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나의 관심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에 어느 추운 겨울날, 명동에서 신자들에게 백설기 한 박스(20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떡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집에 가져가면 냉동실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가 될 수 있기에, 혜화동까지 걸으며 거리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술을 드시며 거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필요한지 물어보았고, 거리에서 주무시던 분들에게는 온기를 느낄 수 있게 얼굴 가까이에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걸어다니면서 백설기를 나누어 드리며 느꼈던 기쁨으로, 추운 겨울이었지만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백설기 부자였던 제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그리고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예수

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었기에 복음을 자주 묵상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 가능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얻는 은총의 힘으로 우리는 의로움과 신심,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1티모 6, 11 참조)

‘불행하게 자신만 걱정 없이 사는 삶, 마음 놓고 살아가는 삶’(마르 6, 1 참조)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살다보면,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은총을 만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도 마지막 날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에 대하여 말하거나 예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되도록,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인데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가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자주 묵상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문 앞의 라자로

화가는 라자로에게 빛을 집중시킵니다. 부자는 자주색 옷을 입고, 풍성한 음식과 화려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그저 탄창 부리는 하인에게 손짓으로 불평할 뿐입니다. 한편, 집 밖으로 나가라는 이에게 라자로는 바닥을 가리키며 단지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이 아니라 라자로의 이름을, 우리 집 대문 앞의 이주민과 난민을 기억하십니다.

성화 해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탄 아주머니를 위한 기도



이수진 유스티나 | JTBC 뉴스룸 앵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풍니·풍넛 마을을 찾았을 때 저는 바짝 얼어 있었습니다. 사전 취재 과정에서 피해 지역 곳곳에 ‘한국군 증오비’가 세워져 있다는 기사를 여러 번 접했던 터였습니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볼지 두려움이 컸습니다. 회색 콘크리트가 깔린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 들어서자 응우옌 티탄 아주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탄 아주머니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게 어머니와 언니, 동생, 사촌을 잃었고, 아주머니 몸에도 총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탄 아주머니는 저를 눈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총살당한 장소였습니다. 원래는 꼬 할아버지의 집이었는데, 당시 10여 명의 시신이 쌓였었고, 세월이 흘러 그곳은 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다.”며 인터뷰 중간 중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덟 살 아이가 예순이 된 세월, 반세기 동안 오래 묵힌 슬픔은 이런 모습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사과한다면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품고 한평생 사는 것도 힘든 일이지, 정의로운 결과를 통해 그 미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데리고 다른 집으로도 안내했습니다. 의외로 마을 사람들은 다정했습니다. 인터뷰가 길어지면 배고프진 않은지, 목마르지는 않은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국인인데 믿지 않으세요?” 떡과 음료를 건네던 마을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젊은이가 우리 마을까지 찾아와 주었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 한국인 기자가 마을에 왔다는 소식에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온 또 다른 아주머니는 “너, 술 잘 마셔? 나중에 나랑 한 잔

하자.”며 장난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농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싸움을 준비하는 전투적인 모습일텐데, 풍니·풍넛 마을 사람들이 제게 보여준 건 친절과 사랑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정 얻고 싶은 건 평화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탄 아주머니의 소식을 관심 있게 찾아봅니다. 대화 중에도 이따금씩 툭툭 튀어나오는 아주머니의 슬픔, 마치 절규처럼 느껴졌던 그때의 인터뷰가 잘 잊히지 않아서입니다. 탄 아주머니는 국가배상소송 1심과 2심에서 이겼습니다. 아주머니의 집념과 한국인 활동가, 변호사들의 꾸준함,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을 피하지 않은 참전 군인의 용기 덕분입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면 여전히 여덟 살 아이가 되는 탄 아주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쟁으로 비롯된 탄 아주머니의 슬픔이 잦아들기를, 그리고 아주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기를.

한컷 묵상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루카 14,14)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6,68)



은성제 요셉 신부 |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서울A지IT) 소장

“신부님, 여기 로마까지 와서 교황님도 만나는 여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소화하는 일정이 저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지난 7월 28일부터 1주일간 열렸던 로마 젊은이의 희년(일명 1004 프로젝트) 순례 중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자마자 ‘마음에 울림을 주는 성령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답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저와 이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자리가 또 생겼죠. 바로 교황님과의 폐막 미사 참석 대신 환자가 되어서 안정을 취해야만 했던 34명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환자인 이 친구들이 몇 시간을 견고, 밤새 들판에서 자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교황님과 함께하는 메인 이벤트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친구들에게는 얼마나 기운 빠지고 실망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정 전체가 실패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친구들은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습니다. 미사 전부터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미사 내내 그분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청년들은 눈물을 글썽이거나 흘리기도 했고, 또 ‘지금 이 순간을 잊어버리기 싫어요.’라며 미사가 끝나자마자 노트를 꺼내서 정신없이 무엇인가 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청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수이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은 깨닫고 살아 내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는 법칙이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에 와서 성당이나 강당 바닥에서 난민처럼 잠을 자고, 제대로 된 샤워 시설도 없이 야외에서 찬물로 씻으며, 강한 햇빛 속에서 목마름과 더위에 지쳐 걷다가 잠시 그늘에 앉아 쉬는 순간, 불어오는 바람에 감사하게 되는 삶. 목이 타는 가운데 받은 바우처로 시원한 물을 마실 때 느끼는 기쁨. 이것이 바로 탈출기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의 삶’ 체험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삶과 결합하여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내 영혼에 은총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통해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이지, ‘여러분만의 왕국을 건설하여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깨닫길 바랍니다. 잠자리, 씻는 것, 물, 음식 등이 풍족하진 않더라도, 꼭 필요한 것들을 넘치지 않게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걷는 길이 바로 은총의 광야길이며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에 넘치게 부유하거나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은총으로 교만하지 않게, 부족함 속에서도 각박하거나 인색하지 않게,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걸을 수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의 나눔이 그 청년들 가슴에 살아 숨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주님의 기도’는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제자들 간청에 따라 ‘주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셔서 ‘주님의 기도’라 합니다. 모든 기도는 하느님께 바치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에, 이 기도는 하느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말 그대로 ‘저자 직강’^①입니다. 이 기도는 복음 전체의 요약이자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담은 기도입니다. 전반부엔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후반부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는 기도로 구성됩니다. 먼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이후 바라는 것을 기도하면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하늘은 어디인가요? 어디부터 하늘인가요? 구름 위? 성층권? 태양계 밖?? 하늘이란 하느님이 계신 곳이고, 하느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하늘이며, 우주 전체가 하늘입니다. 과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은하계에 대략 4000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 전체에는 10의 23승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래가 10의 20승이라고 하니, 별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되시는지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하느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언제나 계시고,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주 전체의 창조주이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Deus semper major 언제나 더 크신 하느님).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은 물리학적 지식에

근거해 창조주 하느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을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중고생들이 공부하며 풀이하는 시험문제 대부분이 자연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문장과 주장을 읽고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신론의 주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머리와 구조로 하느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예전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는 엄하고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엄부자모’란 말이 통용되던 사회에서 사랑과 자비란 말을 ‘아버지’와 연결시키기 쉽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엔 많이 달라졌지요. 예수님은 하느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 계시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가장 깊은 본질이 사랑이라 알려 주십니다.^(1요한 4,16 참조)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마태 10,30) 우주보다 더 큰 하느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 각자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란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향함으로써, ‘지금, 여기서’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시작되고, 기도로 단단해집니다.



〈땅에 쓰는 시〉
2024년작, 정다운 감독

희망영화관

: 땅에 쓰는 시 (다큐멘터리, 2024)

희년을 맞아 서울주보는 희망을 주제로 다양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희망’ 영화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의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희망의 다양한 속성을 제시하고, 서사 안에 이를 잘 담아낸 영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영화와 함께 희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김상용 도미니코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비움이 비로소 가능해졌을 때 맑고 선한 얼굴로 내 마음에 다녀가신 그분 자취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땀에 젖은 몸을 수습하고 허기를 달래려 준비해 간 도시락 덮개를 열어 옆 풀섶에 놓아두려는 무렵 발견한 것은 강원도 고산지대의 여름 야생화인 제비동자꽃이었습니다. 제비의 꼬리 깃처럼 매끈하게 갈라진 붉은 꽃잎이 특징인 제비동자꽃은 희귀 야생화여서 허기도 잊은 채 한참을 쳐다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시야에 들어온 제비동자꽃 군락의 야생화 발은 마치 대지의 흙이 땅에 써 내려간 시처럼 아름답고 고결하며 동시에,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풍경을 선물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가난한 사람이었던 라자로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카복음에서 ‘간절히 바라는’ 대목은 15장 16절에 그 유명한 두 아들의 비유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모두 ‘간절히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간절히’라는 단어는 우리의 온 정신과 영혼이 어느 한 방향으로 깊은 몰입을 가져올 때 발생하는 어떤 현재를 극복하려는 거룩한 전 과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선자령 산마루에서 만난 대지가 흙 위에 쓴 시처럼 여름 야생화의 제비동자꽃 그 아름다움을 땅 위에 당신의 피조물 안에서 그분 스스로

를 현현할 때 하느님께서 피조물에 당신 기운을 집중하셨듯이 말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땅에 쓰는 시〉는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도시인들을 위해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자연관을 고스란히 담은 ‘차경(借景: 경치를 빌린대)’의 개념을 들여와 우리 눈 앞에서 대자연의 신비 안에 깃든 하느님 자취를 느끼게 해주는 한국식 정원의 정수를 보여주는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꾸어야 할 정원은 우리가 실기해 잃어버린 낙원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상기하게 해주는 좋은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은 우리나라 1세대 조경사로서, 이 조경사는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옛 선현의 정신을 자신의 정원 가꾸기의 철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곧, “검소하나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儉而不陋 華而不侈)” 덕 말입니다. 백제의 미라고도 알려진 바로 이 절제의 균형은 앞서 언급한 ‘간절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정신이,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 온 영혼이 한 방향으로 몰입되어 그 방향이 하느님게로 마침내 정향될 때 생기는 정제된 정신의 간절함은 우리 마음의 대지 위에 마침내 땅 위에 쓴 시처럼 꽃을 피워낼 텐데 그 마음의 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라자로가 간절히 바랐던 ‘구원’입니다. 선자령 제비동자꽃을 보고 내려오는 순간, 파울 첼란의 시가 생각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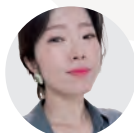
빛이 있었다

그것은 구원.

- 파울 첼란 〈언제가〉 중 -

이 시대의 희망人

시(詩)로서의 성찰(省察) : 구상 세례자 요한



서희정 마리아 | 작가

하얗고 하얀 침상에 누워 푸르디푸른 창밖을 바라본다. “한 겨우내 세상 무대 뒤, 땅 밑에서 움츠리고 살던 초목들이 아무런 요란도 수선도 떨지 않으며 저마다 새로운 봄 치장을 하고서 화사한 햇발을 온몸에 받으며 서로가 염미(艶美)를 발산하고 있”는 봄날이다. 세상이 “푸른 새 옷”을 뽑내는 동안 구상은 저물어 가는 ‘생(生)’을 생각한다. 사실 구상에게 죽음은 너무나 친숙하여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관동 대지진으로 생사를 알 길 없게 된 큰형, 북에 홀로 남은 어머니, 베네딕토회 수도원을 지키다 북에 체포된 둘째 형 구대준 신부 모두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거라 여기며 살았다. 박빙인생(薄氷人生)인 줄 알고 자신이나 자부를 너무 갖지 말라 당부하던 아버지도,



금쪽같은 두 아들도 먼저 앞세워 보내고 영혼과 예술의 친구를 다져 온 이중섭, 오상순도, “그레고리안 합창이 울려 퍼지는 십자가 제단 앞에서 부동아라한(不動阿羅漢) 이기를 다짐했”던 아내도 먼저 주님 곁에 보냈으니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인생이었다. 구상 자신도 종군 생활 중에 또 오랜 세월 괴롭혀 온 폐결핵과의 사투 중에 수시로 떠올린 것이 ‘죽음’이었다. 그리 죽음을 생각하며 산 인생이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한평생 내가 나를 속이며 살아왔다.”라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보험에나 들 듯한 신앙생활도 모두가 진심과 진정이 결한 삶의 편의를 위한 걸치레”였으니 “아주 죄를 일삼고 살아왔달까!”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다 보니,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하느님 맏소사!”란 말뿐이다. 그럼에도 “한 알의 사과 속에”도 “땀과 사랑이 영생”함을, 우리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창창한 우주, 허막(虛漠)의 바다에 모래알보

다도 작은” 몸이 “말씀의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은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實相)으로 깨닫”고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할 뿐이다. 너무 늦지 않게 그리스도 폴(크리스토포로)의 “단순하고 소박한 수행(修行)을 흉내라도” 내 간다면 “구원의 빛을 보리라는 그런 바람과 믿음 속에서” 시를 쓸 수 있게 해주심에 참 복 받은 인생이었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시를 통한 시로서의 성찰(省察)이 가져다준 축복이었다. 숨이 가빠 온다. 구상은 이제 한

줌의 생만이 남았음을 깨닫는다. 중환자실로 옮겨 가는 자신을 슬프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메모지와 펜을 달라 청해 본다. 그리고 구상은 마지막 말을 마지막 힘으로 적는다.

“세상에는 시가 필요해요.” 그러고는 남은 이들이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앓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며 혼수상태에 빠져들었다.

덧) 구상 시인은 아무리 멋진 표현을 사용해도 그 표현이 가치를 가지려면 표현과 똑같은 양의 진실이 담겨있어야 제대로 된 문학이 된다는 ‘등가량의 법칙’을 늘 마음에 지니며 살았다.

오늘(9월 28일)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제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월 6일(월)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도록 돌보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위령기도’를 바칩시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10월 5일 양주선(덕환) 안드레아 신부(55세)
- 1950년 10월 5일 유재옥 프란치스코 신부(52세)

교구청 임시 휴무일 안내

2025년 교구청 직원 추계 야유회를 대신하여, 10월 10일(금)이 교구청 직원 임시 휴무일로 지정되어 각 기관은 휴무입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 · 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 사목국 · 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내용 수정 · 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교구청 알림

음악으로 함께 묵주기도하는 밤

서울대교구의 ‘묵주기도 10억 단 봉헌운동’이 달성을 22퍼센트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이를 더욱 독려하고자 하는 음악회입니다 / 신청: 서울평단협 홈페이지(www.clas.or.kr) 공지사항 참고
 때, 곳: 10월 1일(수) 19시30분, 흑석동성당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문의: 02/777-2013 서울평단협 사목국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10월 모임

대상: 35세 이하 남녀 젊은이
 주제: 희망을 만난 성경 인물 - 예레미야
 때, 곳: 10월 21일 셋째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강사: 이수산나 수녀
 접수: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회비 없음
 문의: 02/727-2031 박스테파니아 수녀

순교자현양 아카데미

대상: 순교자현양회 활동중인 봉사자 및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사전접수) /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때, 곳: 10월 25일(토) 15시~19시, 절두산성지

오후 3시 미사 (절두산 성당)	원종현 신부(순교자현양회 담당사제)
특강 1. (교육관)	이태영 교수(전주교구 순교자현양회)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와 바우배기
특강 2. (교육관)	정민 교수(한양대학교 국문과) 신유박해기 서울의 교회 공동체

2025 ‘가톨릭 50+ 학교’ 교육생 모집

대상: 50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 / 문의: 02/727-2385, 6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523호 / 신청기간: 개강일 1주 전까지(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성경 봉독학교: 전례 독서 및 성경 봉독, 스피치 교육	10월 14일(화)~11월 18일(화) 13시30분~15시(총 6주) / 회비: 8만원
신약학교: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한 신약성경 교육	10월 23일(목)~11월 20일(목) 13시30분~15시30분(총 5주) / 회비: 7만원
구약학교: 구약에서 체험하는 하느님의 사랑	11월 7일(금)~12월 5일(금) 13시30분~15시30분(총 5주) / 회비: 7만원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추석 연휴 휴관: 10월 3일~8일

1483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9월 3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평양교구 강서 본당
 문의: 02/727-2420 / 10월 7일(화)은 추석연휴로 인해 화해미사가 없습니다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곳: 10월 2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 (코스트홀) / 집전: 민경일 신부(미국 알래스카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제79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9월 16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가족, 교육, 이웃)를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교육명: 뮤지컬(이슬), 바이올린(김수연), 심리강좌(윤제연 교수), 이탈리아어(류현미), 집단상담(최현정)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c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교구청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 · 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WYD 청년 리더십 연수

때, 곳: 10월 18일(토) 14시~19시30분,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ydseoul.org) 참여하기 참조
 문의: 02/2230-2023 / 2027 서울 WYD 조직위

가정의 회년 신앙 체험 수기 공모전

대상: 서울대교구에 교적을 둔 모든 신자
 주제: 회년을 살며 가정 기도를 통해 경험한 신앙 체험 이야기 / 11월 2일(주일) 도착분까지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문의: 02/727-2062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5 공관복음서 10월 특강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 없음, 성경지침) / 강사: 조창수 신부
 내용: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 특강
 때, 곳: 10월 3일(금)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2026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순례 피정: 9월 3일~17일 (피정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10월 생명위원회 미사 및 프로그램 안내

1)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0월 13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발리 아채플 / 문의: 02/727-2352
 2) 사별가족 돌봄프로그램 ‘희망샘’
 때, 곳: 10월 21일~12월 9일 매주(화) 오전 10시~12시(총 8주), 생명위원회 교육실 · 노들담교육관(북촌로 가화동)
 문의(신청): 02/727-2354, 010-2081-6462
 3)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과 미사)
 때, 곳: 10월 18일(토) 13시30분~16시30분, 교구청 별관 6층 소성당 / 문의(신청): 02/727-2350
 대상: 낙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10월 12일(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10월 13일(월) 13시30분~16시30분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0월 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하사취' 청년 성지순례(전교가르멜수녀회)

때: 10월 19일(주일) 오전 10시 / 회비: 1만원
 문의(접수): 010-7523-0956 / @carmelitas1977

10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10월 23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성모승천수도회 해외성지순례 / 문의: 010-2378-9104

때, 곳: 프랑스 2026년 4월 7일(화)~21일(화), 북유럽 2026년 9월 8일(화)~19일(토) / 사전접수 필수

서울대교구 양원성당 성령기도회 / 문의: 010-6290-1639

강사: 박희전 신부(작은형제회) / 찬양: 하모니
 때, 곳: 10월 11일(토) 10시~12시, 양원성당

수도전통 렉시오 디비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 만나는 기쁨
 때: 10월 13일부터 매주(월) 오전(7회) / 회비: 12만원
 문의: 010-9401-9374 상지피정집

3지구 매월 셋째(주)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강사: 김현우 신부(인천교구 해외사목 담당)
 말씀치유기도·찬양·미사·안수 / 점심 무료 제공
 때, 곳: 10월 15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0월 17일~20일·11월 14일~17일·12월 19일~22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9월 30일 이병주 신부 10월 7일 추석으로 쉽니다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여주 예수마음선교수녀회(여주 신단2길 109-13)
 문의(접수): 031)885-5015, 010-6471-6932 / 권민자 수녀
 8박9일 12월 1일~9일 40일 10월 14일~11월 22일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0월 17일~19일, 11월 7일~9일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2026년 1월 14일(수)~23일(금)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추천, 황성) / 010-3340-0201

성경원독 10월 24일(금)~11월 1일(토), 11월 14일(금)~22일(토)
 카타리나의 집(개인·자체취사) 문의: 010-9715-1203

그리스도의 레지오수도회 성지순례

순례 모집 / 문의: 010-5735-4578
 레늄크리스티 사도직 담당 정시문 신부

2025년 11월	10박11일, 멕시코 과달루페·칸쿤
2026년 1월	14박15일,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2026년 7월	9박10일, 캐나다 성모성지

2025년 DMZ 평화의 길(도보 순례)

대상: 초3 이상 누구나(40명 선착순)
 때: 11월 7일(금)~9일(주일) 2박3일
 회비: 15만원 / 문의: 031)941-2766(www.pu2046.kr)
 주최: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CLC)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속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곳: 10월 31일(금)~11월 2일(주일), 서울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전철 1·7호선 온수역)
 10월 23일까지 접수(1인1실) / 문의: 02)2135-9398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자연순례 10월 11일~13일·11월 10일~13일·11월 24일~26일·12월 5일~7일·12월 13일~15일·12월 19일~21일·12월31일 2026년 1월 3일, 체나콜로 대피정 자연순례 10월 16일~18일·10월 18일~20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1월 15일~18일·12월 1일~3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가을문화 피정

곳: 왜관 수도원 문화영성센터(주최) / 제작: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회비: 12만원(접수 후 입금) / 문의: 010-6791-0071 (문자)

1차	10월 10일(금) 15시~11일(토) 13시	하삼두 작가
2차	11월 10일(월) 15시~11일(화) 13시	윤광준 작가
3차	12월 5일(금) 15시~6일(토) 13시	오루까 수사

예수회센터 하루 피정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단체 환영합니다
 각 날짜별로 접수 받습니다 / center.jesuit.kr

수요 피정	10월 29일, 11월 19일, 12월 17일 19시~21시(20시30분 미사)	문의(접수): 02)3276-7733
토요 피정	10월 11일, 11월 15일, 12월 27일 10시~15시30분(15시 미사)	

가정선교회 10월 피정

때, 곳: 12시30분~16시50분, 가톨릭회관 1층·3층 강당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성가정 영성 피정	10월 1일(수) / 박현민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10월 4일(토) / 김태광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0월 18일(토) / 장재봉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10월 3일 10시~15시30분
성모님과 함께하는 음악 피정	10월 11일(토) 10시~16시
성모님과 함께하는 무료가를 피정	10월 25일(토) 10시~16시
가톨릭서진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11월 28일~30일(2박3일)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차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밤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혼인성소(새혼 포함) 찾기 피정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 010-3173-2665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자연 피정

내용: 기도와 자연 속에서 주님과 머무는 시간
 때, 곳: 10월 11일(토) 오전 9시, 흥천성당(주일 미사)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회비: 4만원 / 입금계좌: 국민은행 794001-04-122952 사랑이피는기도모임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순례 피정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때: 위령성월 피정 11월 2일~4일, 제주순례 피정 10월 12일~14일·10월 27일~29일·12월 6일~8일·12월 12일~14일·11월 22일~25일(추자도 성지순례),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2026년 1월 9일~11일·1월 15일~18일·1월 23일~25일·1월 30일~2월 1일·2월 6일~8일·2월 22일~24일·2월 27일~3월 1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해남·해돋이) 12월 31일~1월 3일 2026년 피정 접수 중 /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교육

수제 묵주 교육(가톨릭묵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미사반주자 교육 / 문의: 010-3203-8183

곳: 9강동지구오르간교육연구소(천호동성당)·추천

스테인드글라스 교육(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2026년 성인 초등·중학생

교육부 인정 / 영어ABC, 한글, 수학, 초등, 중학 과정 선착순 접수 / 문의: 02)727-2471 한국어여성생활연구원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0월 20일(월)~31일(금) / 전형일: 11월 21일(금)
 곳: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CCM 작곡 포함)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기도하며 기도를 배운다' 성체조배 가을 영성학교

때: 10월 15일~11월 12일 매주(수) 14시~16시(5주간)
 곳: 영성센터(명동) B201호 / 회비: 5만원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0월 15일	김현덕 신부	10월 22일	장궁선 신부
10월 29일	하형민 신부	11월 5일	최강 신부
11월 12일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회장 강의 '성체조배 이렇게 해보세요' / 지도사제 파견 미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9월 29일(월)~10월 20일(월)
 전형일: 10월 25일(토) / 문의: 02)705-8668, 9

모 집 전 공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	'삶으로서의 철학'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어른이 되어서 읽는 '어린왕자'

때: 10월 24일~11월 28일 매주(금) 10시~12시(6회)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0월 13일부터 (월)~(토) 10주
문의: 02)338-3793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10월 12일(주일) 낮 13시30분~16시2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내용: 희망의 찬양과 파견 미사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서울대교구 42기)

때, 곳: 10월 26일~11월 23일 매주(주일) 13시30분~18시30분(5회), 명일동성당 / 회비: 15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sufather2009@naver.com)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 문의: 010-6655-1165

때, 곳: 10월 28일~11월 11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회비: 15만원 / 주화: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성경통독·길잡이 그림들

강의: 창세기 매주(월), 여호수아기 매주(수) 10시~17시(파견 미사), 인천교구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전철 1호선 중동역 5분 거리)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지혜의 샘

명동대성당 성서사십주간 신약 모집

강사: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
대상: 성경에 관심있는 누구나 / 회비: 3만원
때: 10월 21일부터 매주(화) 10시~12시30분(14주간)
문의: 010-2337-4547 (문자) 명동대성당 가톨릭성서모임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제12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10월 9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예수고난회 재속3회(동반자회) 8기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남녀 신자
모집: 9월 28일~12월 7일 / 문의: 010-7553-4672
담당자, 02)990-1004 우이동 명상의집

아퀴나스합창단 단원 모집

제89회 정기연주회(11월초, 살리에리 레퀴엠 및 작곡가 별 미세레레)를 함께하실 분 / 문의: 010-5397-7387
연습: 매주(토) 15시, 명동성당 영성센터
대상: 55세 이하 성음악 합창 경력자(파트별 약간명)

미사

성공로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10월 3일(금)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929-2977

사부 성 프란치스코 대축일 미사

때, 곳: 10월 4일(토) 10시, 프란치스코수도원(한남동)
문의: 02)793-2070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 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과 미사 / 02)3142-4434
때, 곳: 10월 3일(금) 11시10분, 절두산순교성지

마젤람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미사-축하행사

미사 집전: 염수정 추기경
축하행사: 가수, 생활가수 / 기념품 증정: 당일 참가자
때, 곳: 10월 15일(수) 14시~17시, 코스트홀(명동)
2층 문화관 / 문의: 02)723-4706

안내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제공기관
개인·가족상담, 모래놀이 상담 / 문의: 010-2199-3439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종림동약현성당 2026년 4~12월 혼인예식 추천

때: 10월 19일 오후 2시 / 문의: 02)362-1891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100만원(카드 불가)
주의사항-2026년 1월~3월 혼인예식은 홈페이지 확인 후 선착순 예약받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 수시 모집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바오로딸 문화콘서트 '평화와 축복의 울림, 파이프오르간'

내용: 해설과 함께 즐기는 파이프오르간 연주회
때, 곳: 10월 18일(토) 11시, 종로성당
출연: 최호영 신부, 최주용, 임정희, 강효정
접수: 바오로딸 인터넷서점 사이트(무료, 선착순 사전 접수)
문의: 02)944-0829 (업무 시간), 010-7286-7724 (문자)

청소년 언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종합심리검사

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문의: 02)2051-3743
곳: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 매체상담 회당 3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및 시설 거주 청소년은 무료 지원)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c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전문 심리상담치료 국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어르신케어 요양 보호사 / 문의: 010-7171-9503

성현동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방호원 1명(계약직) / 문의: 02)887-4491
대상: 세례받은지 3년 이상된 분 / 업무: 미화·시설관리·방호 등 업무(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0월 18일까지 이메일(jifuco@catholic.or.kr) 및 우편·방문(우 08724, 서울시 관악구 성현로22)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곳: 성북구, 중구 / 분야: 주방근무자 1명(계약직)
대상: 세례받은 분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10월 12일(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예수회	수시	관구본부(마포구)	010-2876-1540(vocation@jesuit.kr)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7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수시	가톨릭회관 516호	010-3068-0325 서울, 010-2969-5119 부산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상담 가능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가톨릭출판사

2025년 10월 추천 도서



출간 예정

하베무스 파팜

크리스토프 에닝 지음 | 1만8천원

시대의 부름에 응답한
레오 14세 교황님의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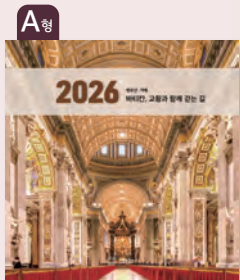
묵주기도 성월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의 9일 기도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4천5백원

성모님의 위로를 받으며
나아가는 길

가톨릭출판사 2026년 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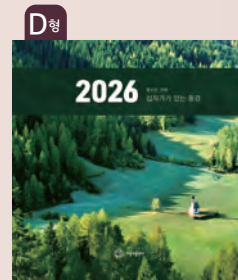
A형
바티칸,
교황과 함께 걷는 길



B형
WYD, 위대한 여정



C형
거룩한 성전들



D형
십자가가 있는 풍경



E형
미사, 찬란한 순간



H형
탁상 달력



대 A4



중 B5

탁상 메모 다이어리



일므디 다이어리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의 모든 도서와 성물, 디지털 콘텐츠를
'가톨릭북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www.CatholicBookPlus.kr ▼

구입문의
02) 6365-1888



◎ 2025년 명동보름장 추석연휴로 인해 휴장

매월 첫째·셋째주에 명동대성당 들머리 입구, 가톨릭 회관 앞마당 일대에서 진행되는 명동보름장이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첫째 주는 휴장합니다.

※명동보름장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입니다.

◎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분과 봉사 회원 모집

※모집조건 -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만 45세~65세 남성 교우

※봉사내용 - 명동성당 사목회 주요 봉사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중현회 :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2838-6401

·대건회 : 짝수달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화합 ☎ 010-9011-8990

·범우회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6340-3528

·광암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8713-2000

·하상회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3687-2322

·만천회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8611-4097

◎ 명동대성당 미사안내봉사단 단원 모집

·봉사시간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주일 오후 6시 미사

·자격조건 : 천주교 세례 받은 신자

·제출서류 : 입단 신청서, 교적증명서

·문 의 : ☎ 010-5894-9943 (문자)

이메일(samlomsoo@gmail.com)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고

◎ 아미쿠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아미쿠스 주일학교는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모집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만 20세~만 40세 천주교 신자

·주요활동 : 주일 오전 10시 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

하는 미사, 미사 후 교리 등

·문 의 : mdsd.amicus@gmail.com (※메일로 연락 요망)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작은 연주회

「주님과 음악 사이에」

·일 시 : 매월 첫째 · 셋째 주일 / 오후 3시 30분

·장 소 : 명동대성당 대성전

※단원모집 : 초2~5학년 가톨릭 신자 남아 / 010-7242-6027

(QR코드 참조)



◆◆ 기부 천사 ◆◆

명동 종합계획 2단계 기금

(9월 15일 ~ 9월 21일 : 10,000,000원)

누계 : 7,031,632,263원

익 명 : 10,000,000원

기부 천사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

(교무금을 은행에서 송금 또는 자동이체하실 경우)

현재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한 교무금(감사헌금·기타헌금) 입금액이 다수 있습니다. 교무금(감사헌금·기타헌금)을 은행을 통해 납부하신 적이 있거나 매월 자동이체 중이신 명동 교적 신자분들께서는 성당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내방 가능하신 분들은 납부하신 내역에 이상이 없는지 사무실로 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송금인의 성명과 더불어 생년월일(6자리)까지** 기재하여 송금(자동이체)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2. 또는 교무금 통장 앞면에 있는 신자 **개인번호**를 기재해 주셔도 납부자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말일은 송금(자동이체)을 삼가해 주세요!**
은행 납입분은 본당으로 내역이 넘어 오는 데 주말이 끼 있을 경우 약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9월 교무금을 30일에 송금(자동이체)하실 경우 10월분 교무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헌금을 포함하여, 성당 사무실에서 책정하신 **교무금 납입금액과 송금(이체)액이 다른 경우** 필히 성당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대성당 장년·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공통사항 : 천주교 세례 받은 남녀 (교적 본당 무관)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31-3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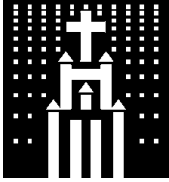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9279-2381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5세 청장년)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 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포럼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전례·성음악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장애인신앙교육 이승규(토마스아퀴나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세베로 이사악(이사악)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9

봉헌 : 236, 512, 213

성체 : 156, 182, 187

파견 : 289

《 축하합니다 》

9월 29일(월)은 본당 청년 담당이신 김 가브리엘
수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시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전교의 달 》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자 전교의 달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성화는 물론, 특별히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시기를
권합니다.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

10월 6일(월) 「추석」 당일 거행되는 모든 미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됩니다. 추석 합동 위령 미사에 미사 지향 접수
하실 분들은 10월 5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거나 추석 당일 합동 위령 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 추석 연휴 기간 상설 고해소 및 본당 사무실 휴무

10월 6일(월)~10월 9일(목)은 상설 고해성사가 없고
본당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10월 10일(금)부터 상설
고해소 재개 및 본당 사무실 정상 근무 합니다.
※연휴 기간 미사는 변동 없이 그대로 봉헌됩니다.

● 천사(천원의 사랑)가 되어 주세요 !

- 9/7(일) 천사 모금액 12,770,000원
본당지원 1,277,000원
- 9월에는 ‘작은예수의 집(불광)’,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비둘기주간보호시설’에 천사의 사랑기금(14,047,000원)을
전달했습니다.
- 10/5(일)에도 노인복지와 여성 인권시설 지원을 위한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직영)’, ‘성우회(연신내)’, ‘까리
파스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인권상담소 소녀의집’을 위한
천사가 되어주세요.

● 병자 영성체 : 10/1(수) 오전 9시

●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 일시/장소 : 10/2(목) 오후 7시 40분 / 대성전

● 본당 사무실 휴무

10월 3일(금)은 개천절로 사무실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너른 양해 바랍니다.
※미사와 고해성사는 변동 없이 그대로 거행됩니다.

● 2025년 10월 예비신자 교리반 (6개월 과정)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목요반	오후 7:30	교구청본관 402호	김수규 (사도요한) 신부
주일반	오후 4:00	교구청본관 402호	박 요안나 수녀

- 목요/주일반 택1, 2시간 교리수업, 주일미사 참례 필수
- 환영식 : 10/12(일) 오전 10시 교구청본관 501호
- 첫 수업 : 10/16(목) 19:30, 10/19(일) 16:00
- 전화·사전 신청 불가 ※만 18세 이상만 신청가능
- 준비물 : 교재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10월 예비신자 환영식 : 10월 12일(주일) 오전 10시

10월 예비신자 환영식은 추석 연휴로 인해 한 주 순연
되어 10월 12일(주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매월 네 번째 주일 오전 11시 미사에는 본당 성소자들과
후원 회원들을 위한 지향이 봉헌됩니다. 성소후원회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수학하는 신학생들과
성소자들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사제·수도자 양성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9/15-9/21).....14,873,000
 - 순교자 대축일 헌금.....41,287,522
 - 감사헌금 (9/15-9/21).....1,180,000
- 김 로사리아 / 김 마태아 / 김 요셉 / 문 도미니코 / 신 베르타
양 크레센시아 / 이 레오 / 임 사무엘 / 장 파비올라
전 베로니카 / 정 마리스텔라 / 천 테클라 / 익명 (4)

미 사 (M a s 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회금 봉헌 QR 코드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주일미사 (토요일)	18:00, 19:00(3545+ 청년미사)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평일미사	월	07:00, 18:00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성지미사	월-토	10:00	Sun.	08:30 - 08:5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Sat.	16:00 - 17:00				

【 1% 행복발견 】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행복 발견하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니 행복합니다.